

‘성장의 미학’...나무처럼 고요히, 그러나 멈춤없이

기워드로 봄 名畫 이야기

성장의 미학

더딜지라도 멈춤없이

2020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해가 떠올랐다. 뜨거운 열정의 상징인 ‘붉은 말’의 해에 비유할 수 있듯 사람들은 흔히 새해를 맞이하며 폭발적인 변화와 눈에 보이는 성취와 성장을 꿈꾸곤 한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신발끈을 조여 맨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우리가 매년 반복해 온 그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고, 장밖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의 미학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나무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도 나무는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며 다가올 봄을 준비한다. 자라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그 지독한 고요함, 그러나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그 집요한 생명력이 결국 거대한 숲을 일궈내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의 2020년도 응당 그래야 하지 않을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나무처럼 고요히 그러나 멈춤 없이 나만의 내실을 다져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더딜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이테를 한 줄씩 새겨가는 그 ‘성장의 미학’이야말로 올 한 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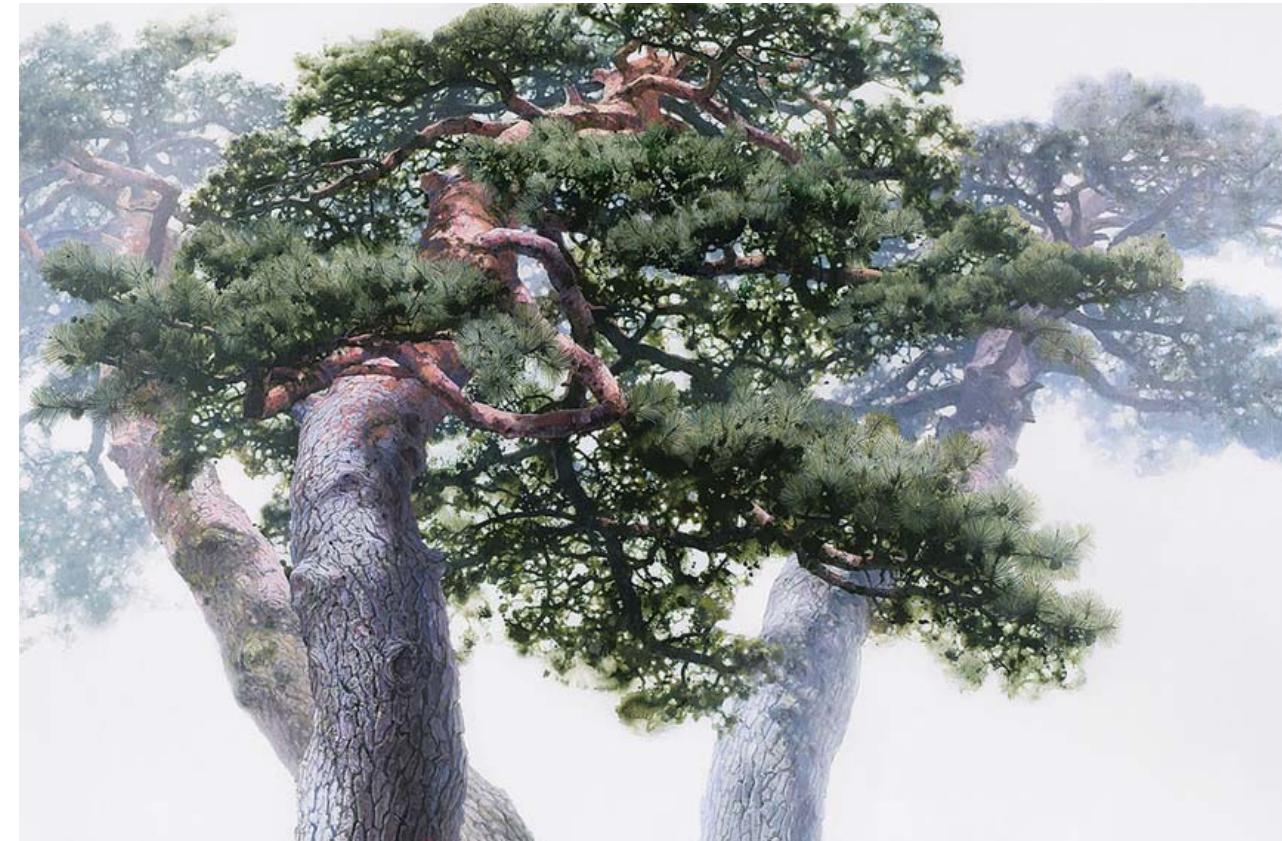
황금빛 가지 끝에 맺힌 약속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Tree of Life)는 1905년에서 1911년 사이 벨기에 브뤼셀의 한 저택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대형 벽화의 일부이다. 당시 엄청난 부호였던 의뢰인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고, 덕분에 클림트는 금, 은, 보석 등의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작품을 제작했다.

또한 건축, 회화, 공예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을 지향했던 클림트가 속해있던 빈분리파(Wiener Secession)의 성격과 클림트가 이탈리아 여행 중 봤던 비잔틴 시대의 황금 모자이크는 작품 제작 방법을 구현하는데 도대가 돼졌다.

특히 화가 클림트에게 ‘황금시기’라 불리는 기간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개인적인 변화와 예술적 성숙이 함께 맞물린 시기에 제작된 작품이라 그 가치가 더 높다.

작품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화면 전체를 휘감고 있는 복잡하고 우아한 소용돌이다. 이 문양은 예술적 성숙의 시기에 그가 도달했던



류명렬作 ‘소나무-시간이 머문 자리’

〈작자 제공〉



구스타프 클림트作 ‘생명의 나무’(Tree of Life)

〈위키피디아 검색〉

‘생명력’에 대한 철학적 완성을 뜻하기도 한다.

나뭇가지들이 그리는 ‘소용돌이’(Spiral) 문양은 ‘영원성’과 ‘순환’을 상징한다. 클림트는 이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재탄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섭리를 나무 한 그루에 집약시켰다.

이 황금빛 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화면 구석 구석을 향해 뻗어 나가지만, 그 움직임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다.

실제로 자연 속의 나무가 그리하듯, 성장은 폭발적인 굉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밀어 올리는 고요한 안내의 산물이다. 클림트는 이를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형상화하며, 멈추지 않고 확장되는 생명력을 시각적 리듬으로 표현했다.

이 수 많은 소용돌이 가지들은 서로 끊어지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돼 나무 전체의 형상을 이룬다. 이는 우리의 삶 또한 단절된 순간들의 합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조용히 맞

물려 내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을 보자. 그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풍경화를 그려 많은 인기를 누렸던 화가였다.

프리드리히의 작품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를 보면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신비주의적이고 멜ancholic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 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자욱한 안개 바다를 등지고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은 마치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 속에 화가의 삶이 녹아들 수밖에

없듯 당시 프리드리히의 심경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다. 거대한 자연 속 자욱한 안개 속에 한지 앞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안개와 가장 가까운 낭떠러지 끝에 의기 양양하게 선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은 없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누이를 잃었고, 심지어 막내 동생이 얼음 호수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렇듯 가족의 죽음을 너무 어린 나이에 연달아 겪으며 그의 삶은 어두움과 슬픔 그 자체에 침침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44세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간 세상에 움츠려 있던 자신을 이제는 당당히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생겼음을, 그리고 맞서 싸우겠다는 긍정의 의지를 작품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감당치 못할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러므로 감정을 추스르며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은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굳세게 나아갈 삶의 여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뿌리내림

류명렬 작가의 작품을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강직하게 선 소나무와 생기 넘치는 푸른 잎이다. 마치 눈앞에서 소나무를 보는 것처럼 그려낸 뛰어난 묘사력 그리고 원근감을 준 색채까지 아름답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새로운 계절에 대비해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소나무는 맨몸 그대로 부딪히며 변화를 맞이한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 중 의미 없는 것이 있겠느냐는 유난히 특별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작가에게 소나무를 그려나가는 과정은 창작자로서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다.

또한 작가에게 소나무는 단순히 작품의 소재가 아니라 오랜 벗이다. 20여 년 줄곧 나무 그리기를 고집해 온 그에게 소나무는 이제 대상을 넘어 그의 사유를 담은 회화적 방식의 표현체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자신이 느끼는 긍정의 에너지와 소나무의 변치 않는 푸르름 그리고 강한 생명력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진정한 성장의 미학은 타인의 속도에 힘쓸리지 않고 자신의 계절을 뚱룩히 기다리는 인내에서 시작된다. 조용히 피어난다는 것은 성장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내면을 채워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나무가 침묵 속에서 나이테를 새기며 단단해지듯, 2020년 한 해, 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더딜지라도 묵묵히 자신만의 꽃잎을 빛어간다면, 그 지혜로운 태도는 결국 우리를 가장 흔들림 없는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현남(문화비평·갤러리 현 대표)〉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사용기한 없음

365일 관리

전문 입장

가족구성 가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입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